

“무주 설천 풍력발전소 설치 왜말?”

(민주시산)

2021년 3월까지 200억원 투입 진행...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지역주민 구성 비대위 결사반대 호소

무주군 설천면 민주시산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위원장 강재만)의 강력한 결사반대 호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설천면 미천리 민주시산 산1번지(국유림)에 조성되는 풍력발전소는 무주 에코랜드에서 4.2MW 20기를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0억원 넘게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 었다.

하지만 풍력발전소가 조성될 지역주민들의 약8%가 반대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풍력 발전소 사업 반대 주민들 100여명은 지난 1일 무주군청 주차장 옆 집회에서 “주민은 풍력발전소 피해를 원치 않는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결사반대운동 시위를 했다.



무주군 설천면 민주시산 풍력발전소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위원장 강재만)이 결사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백두대간 민주시산은 1242m로 전북무주, 경상김천, 충북영동만 만나 는 삼도봉과 문화유적지 민간신앙인

일체 삼두삼 신앙, 약수샘이 있는 석어설 백두대간 민주시산은 1242m로 전북무주, 경상김천, 충북영동만 만나 는 삼도봉과 문화유적지 민간신앙인

고 동쪽 사면에는 송천이 흐르고 있어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이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어 “민주시산에는 고로쇠, 상수리 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등 온대 남북부 식물 혼합림과 국내 최대 원시림의 생태계 동식물 자원 보고지역으로 전체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을 반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평화로운 마을에 풍력발전소 건설로 이웃 간 갈등과 분열을 원치 않는다”면서 “조상님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강산을 훼손치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연휴 마지막 날 한산한 고속도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전주 시 상공에서 바라본 호남고속도로가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한산하다.

전주만의 역사문화 ‘낮과 밤 가득’

시, 상설프로그램 확대 · 문화재 야행 콘텐츠 보강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 등 주 · 야간 콘텐츠 선배

전주시가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문화 콘텐츠 중점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역사문화 되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설프로그램 확대 △전주 문화재 야행 콘텐츠 보강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 등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주 · 야간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수문장교대식과 수복정 공연, 왕곡의 산책, 경기전 이야기술사 등 전주한옥마을의 상설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시민과 여행객이 전주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주한옥마을 수문장 교대식은 조선시대 왕궁을 지키던 수문장의 교대식으로, 시는 이를 새롭게 구성,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 시간 동안 펼친다.

또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경기전 부속재 상설공연은 올해도 경기전을 입장한 관람객들에게 지역 예술

인들의 공연을 통해 전주의 소리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왕으로 분장한 배우들의 맛깔 나는 문화해설과 달빛 아래서 차 한잔의 여유를 선물하는 ‘왕곡의 산책’도 5월부터 9월까지 계획되어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주간 여행객이 야간까지 머물러 전주에 체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상설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난해 전주 문화재야행에서 호평을 받은 이야기술사들의 공연은 올해부터 ‘이야기술사들의 전주 야그’라는 명칭으로 상설화돼 5월부터 9월까지 평일 주간 여행객을 만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전주 문화재 야행의 콘텐츠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전주 문화재야행은 봄(5월 25일)과 가을(9월 21일) 두 차례 운영

될 예정이다. ‘야(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숙, 야시)’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1688년(숙종 14년)에 서울 영화전의 태조어진을 새로 모사하기 위해 경기전의 태조어진을 서울로 모셔오다가 다시 전주 경기전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고증을 통해 재현하는 태조어진 봉안행렬과 전주사고에 모셔진 조선왕조실록을 습기와 충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바람에 말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 등 문화특별시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더욱 풍성한 주 · 야간 문화 콘텐츠로 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과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주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빛나는 전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잊혀진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하는 역사문화 되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도교육청, 68개 고교
오늘부터 추가 원서접수

전북교육청은 7일부터 2019학년도 고입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에는 도내 68개 고교에서 총 2,210명을 선발하며,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전기고 23교에서 1,160명, 후기고 45교에서 1,050명을 선발한다. 추가모집 지원은 정시모집에서 어느 학교에도 합격하지 않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는 이 기간에 출신중학교 NBS 원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1개 학교 1개 학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 불합격자는 수시 추가모집에 응할 수 있다.

학교별로 7일 실시하는 추가모집 전형은 100% 내신으로 이루어지며, 합격자는 오는 15일 해당학교에서 발표한다. 수시 추가모집은 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교별로 수시로 전형(선착순)을 하여 합격 처리하며, 입학시키는 교육과정 이수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생활 SOC 추진단 본격 가동

전북도는 생활 SOC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을 본격 가동하여 2020년 생활 SOC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생활밀착형 SOC는 도로 · 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 · 복지 · 문화 · 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확보한 2019년도 생활 SOC 국비 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등 72개 사업 6,072억원이며, 정부 미 확정분(2.1조원)은 1월부터 진행 중인 체육시설 복합화 공모, 선도복합프로젝트 등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부처 공모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과제별로 업무 수행할 총괄단을 비롯한 7개반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올 초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생활 SOC 사업 발굴, 총괄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